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특성 및 일자리 변화

백원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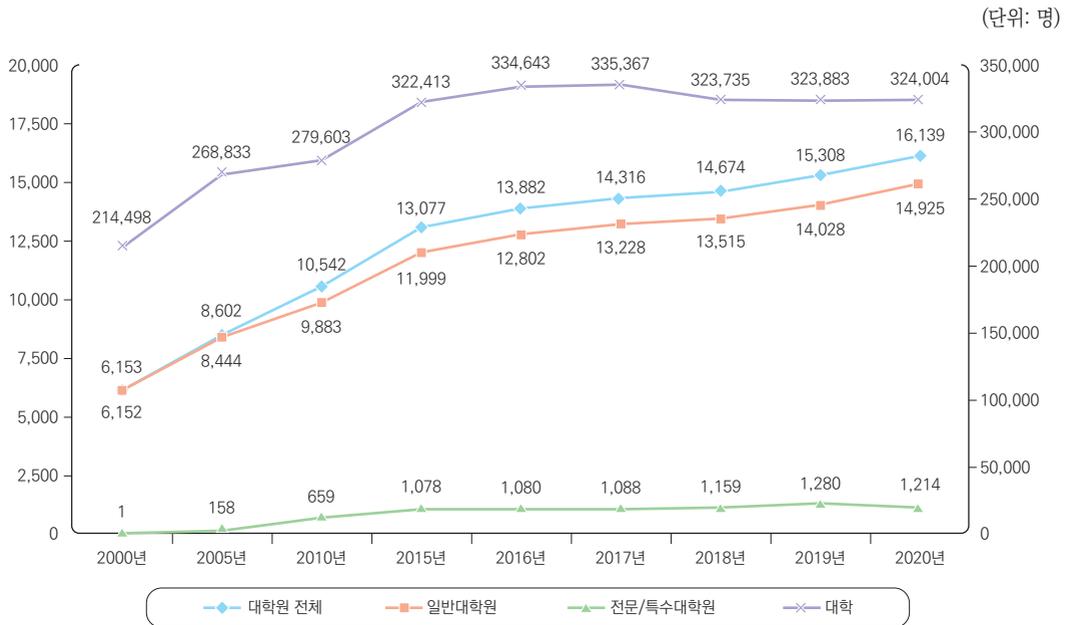
김혜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원

I. 서론

□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 등으로 인하여 국가경제 지속 성장을 위한 고급인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내 박사인력의 양적인 규모도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총 1만 6,139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률은 3.8%, 전년 대비로는 약 5.4% 증가하였음(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 2017년 이후 국내 대학 졸업자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인적자원 개발, 기술혁신 등을 위한 R&D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림 1. 연도별 학위 취득자 수 변화



주: 1) 대학원에는 대학부설 대학원의 일반·전문·특수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의 전문·특수대학원이 포함됨.
 2) 학위 취득자 수는 전년도 8월과 당해 연도 2월 학위 취득자를 포함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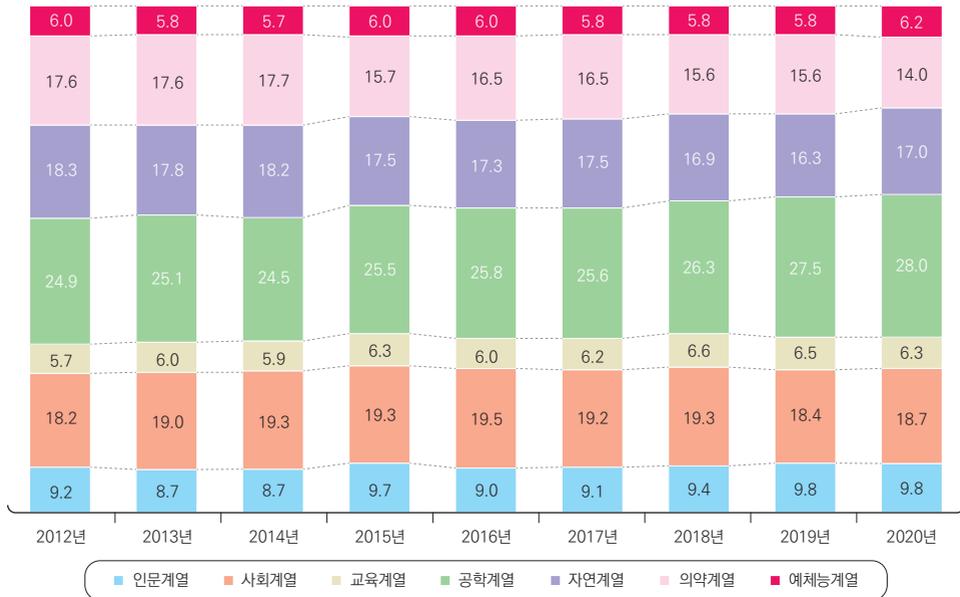
□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통계조사에 따르면, 전공계열별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중은 공학계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중 여성의 비율은 2012년 32.8%에서 2020년 38.4%로 상승함.

- 전공계열별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중은 2020년 기준 공학계열(28.0%), 사회계열(18.7%), 자연계열(17.0%) 순으로 나타남.
- 공학계열 학위 취득자의 비중은 2017년(25.6%)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28.0%로 나타남.
- 전공계열별로 여성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교육계열에서 75.4%로 가장 높고, 공학계열은 12.8%에 불과함.

- 사회계열 분야에서 여성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중은 31.0%(2012년) → 35.8%(2016년) → 40.0%(2020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림 2. 학위 취득자의 전공계열별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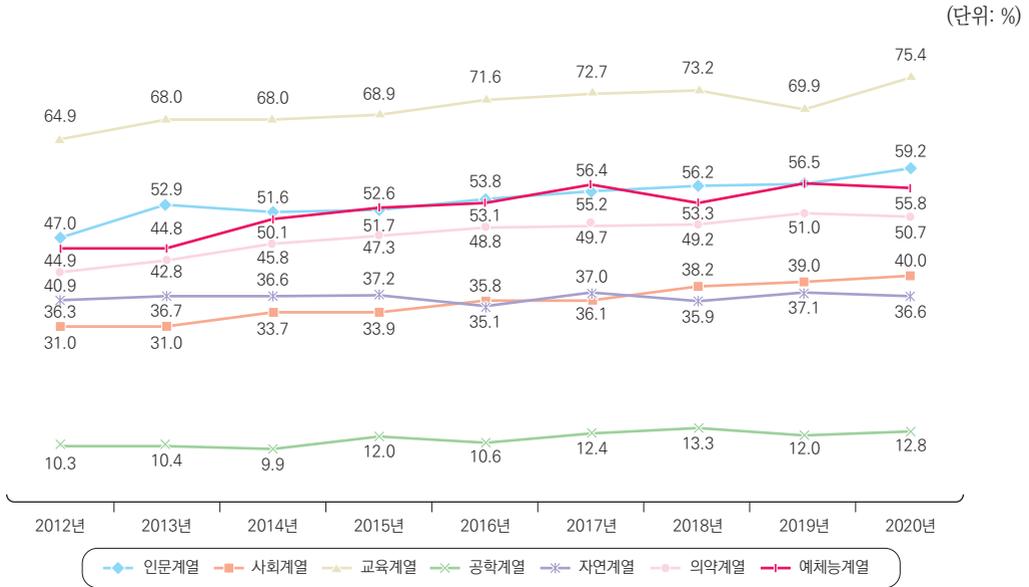


주: 1) 전공계열별 졸업자 비중은 해당 연도 2월 및 전년도 8월 졸업자를 의미함.

2)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기준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그림 3. 전공계열별 국내 여성 박사학위 취득 비율 추이



주: 1) 여성 졸업자 비중은 해당 연도 2월 및 전년도 8월 졸업자를 의미함.
 2)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기준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 고급 전문인력이 사회경제적 발전의 핵심 동인으로 주목받고, 박사인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증대되면서 이들의 양성과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높아짐.
 - 이에 따라 고급인력 정책의 통계 인프라 구축 및 미래 수요 대비를 위하여 국내 박사인력의 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고용 상태 등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본고에서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특성 및 취업 현황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박사인력의 양성, 배분, 활용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II. 분석 자료 및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특성 변화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 실태조사」는 국내 대학에서 박사를 취득한 신규 학위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로,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교육 및 노동시장 이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 「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 실태조사」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교육부의 공동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920009호)로, 매년 2월 및 8월 졸업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 실태조사」의 2020년 기준 응답률은 약 64.1%임.

○ 본 조사는 2012년 이후 매년 수행하여 장기적으로 자료를 구축함에 따라,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인적 특성, 박사과정 유형(학업 전념자/직장 병행자), 노동시장 이행 현황, 박사 후과정 및 연구 활동 등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음.

- 본고에서 「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 실태조사」를 활용한 전공계열에 따른 주요 분석 결과는 의약, 교육(사범), 예술/체육계열을 제외한 인문, 사회, 공학, 자연계열을 중심으로 살펴봄.

표 1.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전공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박사학위 취득자	12,243	12,625	12,931	13,077	13,882	14,316	14,674	15,308	16,139
	응답자	7,064 (57.7)	8,044 (63.7)	9,065 (70.1)	9,264 (70.8)	8,705 (62.7)	9,180 (64.1)	8,810 (60.0)	9,434 (61.6)	10,343 (64.1)
인문계열	박사학위 취득자	1,127	1,096	1,122	1,272	1,244	1,296	1,373	1,506	1,582
	응답자	729 (64.7)	694 (63.3)	805 (71.7)	784 (61.6)	725 (58.3)	710 (54.8)	697 (50.8)	704 (46.7)	961 (60.7)

〈표 계속〉

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 실태조사 | 조사 · 통계 브리프

사회 계열	박사학위 취득자	2,234	2,405	2,496	2,518	2,704	2,755	2,839	2,819	3,016
	응답자	1,362 (61.0)	1,646 (68.4)	1,781 (71.4)	1,807 (71.8)	1,672 (61.8)	1,775 (64.4)	1,739 (61.3)	1,845 (65.4)	1,980 (65.6)
공학 계열	박사학위 취득자	3,050	3,163	3,171	3,332	3,581	3,665	3,866	4,217	4,518
	응답자	1,755 (57.5)	2,070 (65.4)	2,377 (75.0)	2,701 (81.1)	2,773 (77.4)	2,932 (80.0)	2,889 (74.7)	3,085 (73.2)	3,499 (77.4)
자연 계열	박사학위 취득자	2,242	2,251	2,352	2,282	2,397	2,512	2,485	2,496	2,745
	응답자	1,266 (56.5)	1,360 (60.4)	1,598 (67.9)	1,501 (65.8)	1,404 (58.6)	1,510 (60.1)	1,419 (57.1)	1,498 (60.0)	1,675 (61.0)

주: 1) 박사학위 취득자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8월 공표하는 교육기본통계조사에서 전체 박사학위 취득자 수를 의미하고, 응답자는 졸업 명부상의 전체 박사학위 취득자 중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박사조사에 응답한 인원 수를 의미함.

2)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통계조사 및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박사조사에서 졸업자의 연도별 추이는 해당 연도 2월 및 전년도 8월 졸업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2020년 졸업자는 2020년 2월 졸업자와 2019년 8월 졸업자를 의미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 실태조사」.

□ 박사학위 취득자의 연령 및 박사과정 유형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최근에는 34세 미만에서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50세 이상에서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박사학위 취득자 중 2020년 기준 34세 미만의 비중은 41.7%로, 2013년에 비해 약 6.9%p 상승하였음.

- 2020년 50세 이상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중(18.2%)이 2013년(16.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2.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연령대별 성별 비율 변화 비교

(단위: 명, %)

구분	2013년			2020년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전체	5,256 (65.4)	2,781 (34.6)	8,037 (100.0)	6,479 (62.7)	3,863 (37.4)	10,342 (100.0)
30세 미만	239 (50.0)	239 (50.0)	478 (6.0)	625 (61.6)	390 (38.4)	1,015 (9.8)
30~34세	1,501 (64.9)	811 (35.1)	2,312 (28.8)	2,267 (68.7)	1,035 (31.3)	3,302 (31.9)
35~39세	1,096 (62.6)	654 (37.4)	1,750 (21.8)	1,085 (60.6)	705 (39.4)	1,790 (17.3)
40~44세	862 (64.2)	480 (35.8)	1,342 (16.7)	692 (55.8)	548 (44.2)	1,240 (12.0)
45~49세	533 (65.7)	278 (34.3)	811 (10.1)	626 (56.2)	487 (43.8)	1,113 (10.8)
50세 이상	1,025 (76.3)	319 (23.7)	1,344 (16.7)	1,184 (62.9)	698 (37.1)	1,882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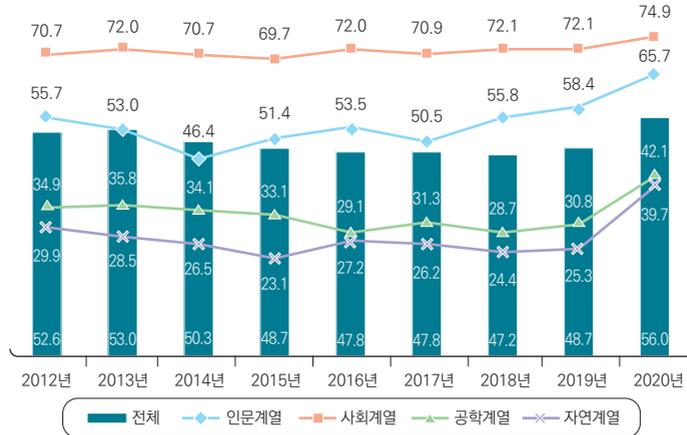
자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 실태조사」.

○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중 2015년 이후 학업 전념자의 비중이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2020년에 들어서 직장 병행자의 비율은 약 56%로 전년도(48.7%)에 비해 높고, 최근 들어 인문, 사회, 공학, 자연계열의 박사학위 취득자 중 직장 병행자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20년 기준 인문계열 및 사회계열의 직장 병행자 비중은 각각 65.7%, 74.9%로 공학계열(42.1%) 및 자연계열(39.7%)에 비해 높은 수준임.
- 2020년 기준 공학계열 및 자연계열에서는 2019년에 비해 직장 병행자 비율이 각각 11.3%p, 14.4%p 상승하여 인문계열 및 사회계열에 비해 직장 병행자가 크게 증가한 편임.

그림 4. 전공계열별 직장 병행자 비율 변화

(단위: %)



자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 실태조사」.

Ⅲ. 신규 박사인력의 노동시장 변화

□ 한국교육개발원의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통해 2019년 2월과 2018년 8월 박사학위 취득자의 취업률, 유지취업률, 월평균 초임 급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9년 2월과 2018년 8월 박사학위 취득자의 취업률은 83.3%이고 전년 대비 2.3%p 증가하였음.

- 박사학위 취득자 중 남성의 취업률은 87.8%이고, 여성의 취업률은 75.8%임.

○ 박사학위 취득자의 2019년 12월 31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11개월 경과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이 유지되고 있는 비율(유지취업률)은 93.7%임.

- 남성의 유지취업률은 95.0%, 여성의 유지취업률은 91.0%로 나타남.

○ 2019년 12월 31일 당시 박사학위 취득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초임 급여는 581.7만 원으로 나타났음.

-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의약계열 862.7만 원, 사회계열 579.4만 원, 공학계열 568.2만 원, 교육계열 454.8만 원, 자연계열 428.8만 원, 인문계열 378.3만 원, 예체능계열 367.4만 원으로 나타남.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 실태조사」를 통해 박사학위 취득 당시 박사후연구원(Postdoc) 현황, 고용형태 및 종사상 지위 등 일자리 특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박사학위 취득 당시 취업, 시간강사 또는 박사후연구원(Postdoc)으로의 진로 확정 비중은 2015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 중 인문 및 사회계열의 학업전념자 비중은 매우 낮은 편임.

- 박사학위 취득 당시 조사 응답자 중 시간강사 및 박사후연구원을 포함하여 취업 또는 취업 예정 상태라고 응답한 비중은 2012년 67.8%에서 2015년 76.4%로 증가하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는 69.5%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인문계열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진로 확정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 학위 취득 당시 진로 확정자 중 학업전념자의 비중은 26.7%(2020년)이며, 인문 및 사회계열에서는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기준 각각 14.5%, 10.1% 수준임.

- 공학 및 자연계열에서는 학업전념자의 진로 확정 비중이 직장병행자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각각 40.1%, 42.3%로 전년도(56.9%, 63.7%)에 비해 하락하였음.

표 3.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전공계열별 진로 확정 비율 변화

(단위: 명,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4,694 (67.8)	5,736 (72.1)	6,761 (75.5)	7,013 (76.4)	6,368 (75.5)	6,721 (74.3)	6,430 (74.0)	6,579 (70.6)	7,165 (69.5)
학업전념자	1,324 (28.8)	1,807 (32.2)	2,490 (37.6)	2,769 (39.9)	2,664 (42.1)	2,794 (41.7)	2,723 (42.4)	2,508 (38.2)	1,911 (26.7)
인문	474 (67.5)	462 (68.7)	569 (73.0)	595 (77.3)	514 (74.0)	449 (65.0)	464 (68.2)	434 (63.0)	592 (61.9)
학업전념자	135 (29.2)	148 (33.3)	244 (43.7)	228 (38.8)	186 (36.6)	180 (40.2)	164 (35.4)	126 (29.1)	86 (14.5)
사회	1,004 (74.9)	1,267 (77.7)	1,393 (79.7)	1,473 (82.5)	1,269 (78.8)	1,382 (79.1)	1,354 (78.8)	1,359 (74.7)	1,444 (73.2)
학업전념자	144 (14.7)	194 (15.8)	229 (16.9)	307 (21.2)	240 (19.1)	257 (18.8)	251 (18.6)	211 (15.6)	146 (10.1)
공학	1,102 (63.7)	1,364 (66.4)	1,722 (72.7)	1,943 (72.4)	1,960 (72.5)	2,100 (72.4)	2,040 (71.4)	2,084 (68.2)	2,353 (67.4)
학업전념자	526 (48.2)	662 (49.6)	935 (55.2)	1,080 (56.1)	1,201 (61.6)	1,240 (59.1)	1,253 (61.5)	1,182 (56.9)	941 (40.1)
자연	673 (54.5)	839 (62.4)	1,034 (65.7)	951 (64.0)	935 (68.6)	998 (66.9)	931 (66.8)	938 (63.6)	1,067 (64.0)
학업전념자	321 (49.0)	479 (57.9)	635 (62.8)	626 (66.3)	591 (63.8)	637 (64.1)	613 (66.0)	595 (63.7)	450 (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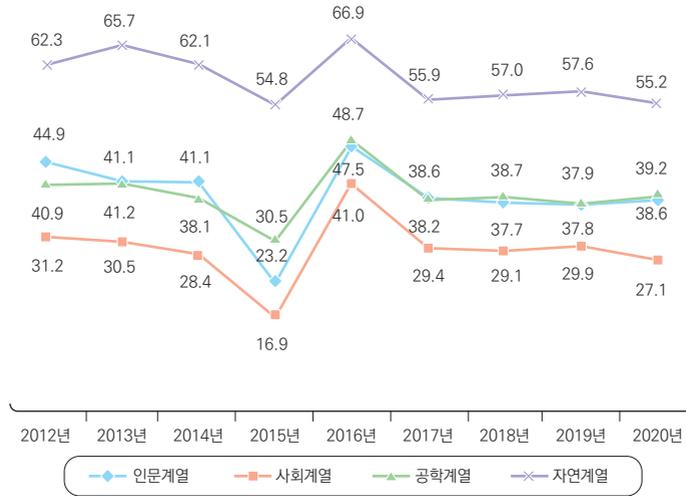
자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 실태조사」.

○ 박사학위 취득 당시 박사후연구원 확정 및 준비 중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41.7%(2012년) → 28.7%(2015년) → 38.1%(2020년)로 변화함.

-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자연계열 박사학위 취득자의 박사후연구원 비중이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높은 편이나, 대부분의 전공계열에서 2020년 기준 2012년에 비해 박사후연구원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전공계열별 학위 취득 당시 박사후연구원(Postdoc) 계획 및 준비 비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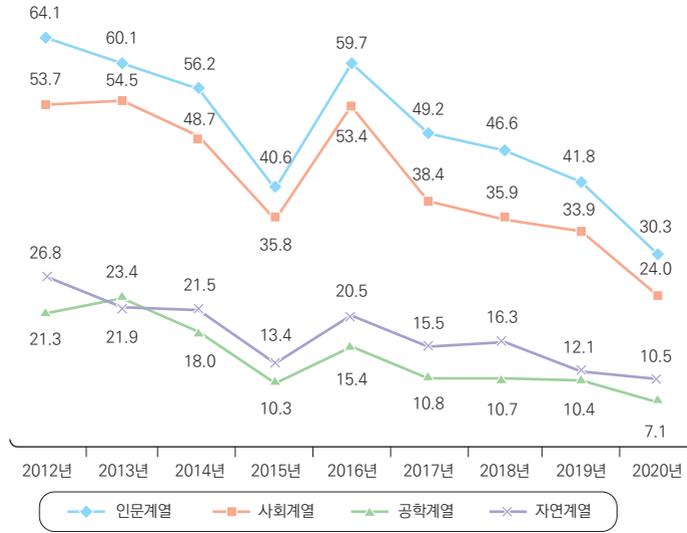
자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 실태조사」.

○ 박사학위 취득 당시 전업 및 겸업 시간강사 확정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38.8%(2012년) → 22.4%(2015년) → 16.0%(2020년)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알 수 있음.

-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 및 사회계열에서 시간강사 비율이 공학계열 및 자연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그 비율이 2012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6. 전공계열별 학위 취득 당시 시간강사 비율 추이

(단위: %)



자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 실태조사」.

○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2018년 이후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018년 이후 88%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70.0%(2012년) → 65.2%(2018년) → 68.9%(2020년), 임시근로자의 비중은 13.7%(2012년) → 22.5%(2018년) → 19.0%(2020년)로 나타남.

표 4.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종사상 지위 변화

(단위: 명,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4,533	5,571	6,621	6,917	6,153	6,526	6,243	6,435	7,133
임금근로자	3,808 (84.0)	4,656 (83.6)	5,785 (87.4)	6,197 (89.6)	5,460 (88.7)	5,820 (89.2)	5,519 (88.4)	5,711 (88.7)	6,301 (88.3)
상용근로자	3,174 (70.0)	3,823 (68.6)	4,565 (69.0)	4,580 (66.2)	4,071 (66.2)	4,321 (66.2)	4,072 (65.2)	4,352 (67.6)	4,912 (68.9)
임시근로자	620 (13.7)	822 (14.8)	1,199 (18.1)	1,599 (23.1)	1,343 (21.8)	1,450 (22.2)	1,405 (22.5)	1,320 (20.5)	1,353 (19.0)
일용근로자	14 (0.3)	11 (0.2)	21 (0.3)	18 (0.3)	46 (0.8)	49 (0.8)	42 (0.7)	39 (0.6)	36 (0.5)
비임금근로자	725 (16.0)	915 (16.4)	836 (12.6)	720 (10.4)	693 (11.3)	706 (10.8)	724 (11.6)	724 (11.3)	832 (11.7)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430 (9.5)	730 (13.1)	670 (10.1)	552 (8.0)	509 (8.3)	502 (7.7)	502 (8.0)	484 (7.5)	565 (7.9)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91 (6.4)	183 (3.3)	163 (2.5)	160 (2.3)	174 (2.8)	178 (2.7)	200 (3.2)	214 (3.3)	246 (3.5)
무급 가족종사자	4 (0.1)	2 (0.0)	3 (0.1)	8 (0.1)	10 (0.2)	26 (0.4)	22 (0.4)	26 (0.4)	21 (0.3)

자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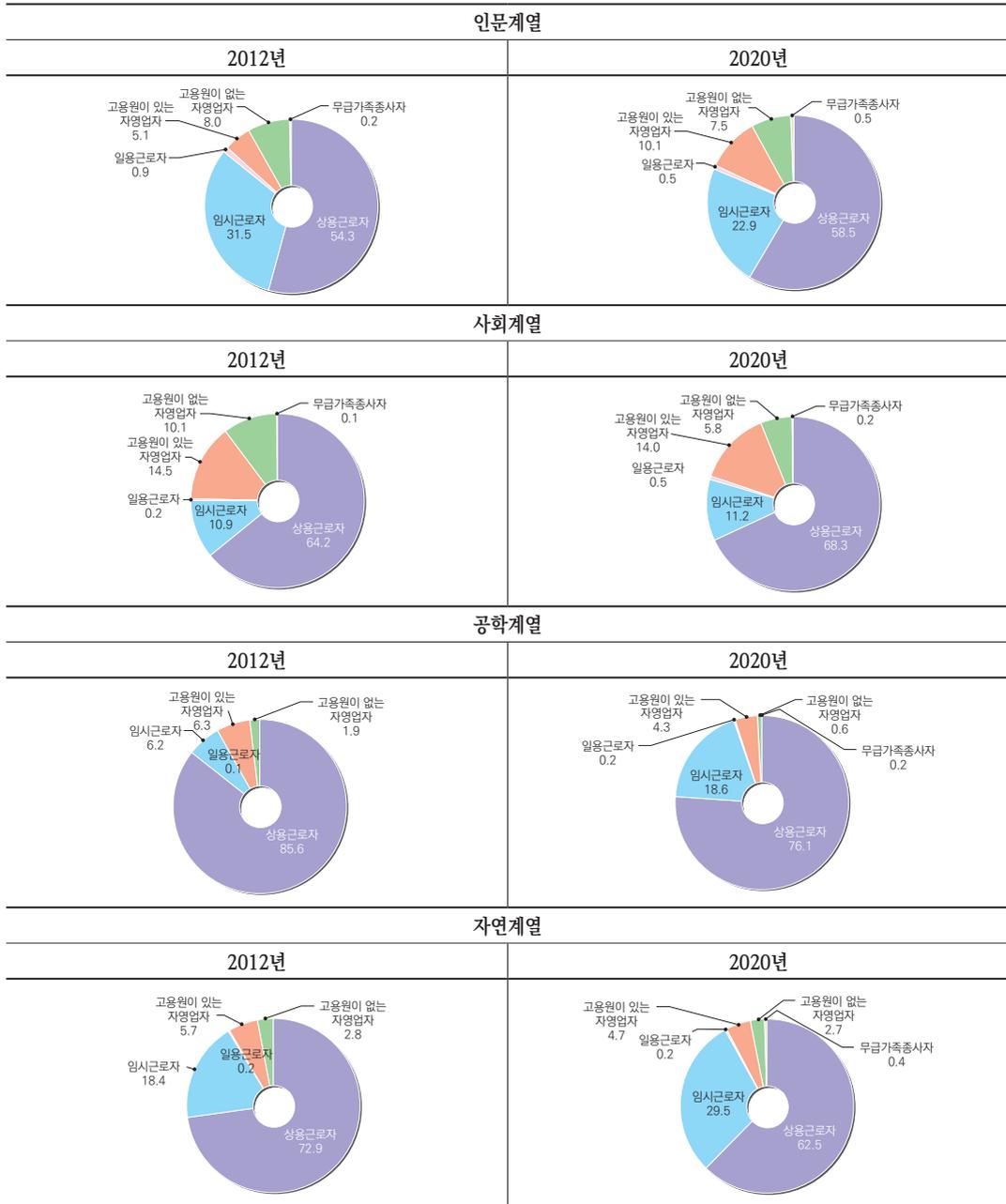
○ 전공계열별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종사상 지위 변화를 살펴보면, 2012년에 비해 2020년에 인문계열 및 사회계열에서는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공학계열 및 자연계열에서는 임시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였음.

- 공학계열 및 자연계열에서는 인문계열 및 사회계열에 비해 상용근로자 비중이 높지만 2012년에 비해 상용근로자 비중은 각각 9.5%p, 10.4%p 감소하였고, 임시근로자의 비중은 각각 12.4%p, 11.1%p 증가하였음.

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 실태조사 | 조사 · 통계 브리프

그림 7. 전공계열별 박사학위 취득자의 종사상 지위 변화(2012년과 2020년 비교)

(단위: %)



자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 실태조사」.

○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고용형태별 변화를 살펴보면, 2018년 이후 정규직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인문계열 및 사회계열의 정규직 증가 폭이 공학계열 및 자연계열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정규직 비중은 63.1%(2016년) → 62.0%(2018년) → 64.6%(2020년)로 변화하였음.
- 사회계열의 정규직 비중은 분석에 포함된 전공계열 중 가장 높은 수준(2020년 77.1%)이며, 2020년에는 2016년에 비해서 4.9%p 증가하였음.
- 인문계열의 2020년 정규직 비중은 2019년(48.3%)에 비해 9.1%p 증가한 57.4%로 나타났다.
- 공학계열 및 자연계열의 정규직 비중은 연도별로 약간의 증감은 있으나 대체로 비슷한 수준임.

표 5.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고용형태 변화

(단위: 명,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5,422	5,836	5,562	5,778	6,288
정규직	3,422 (63.1)	3,640 (62.4)	3,449 (62.0)	3,727 (64.5)	4,062 (64.6)
비정규직 (풀타임)	1,423 (26.2)	1,539 (26.4)	1,473 (26.5)	1,421 (24.6)	1,639 (26.1)
비정규직 (파트타임)	577 (10.6)	657 (11.3)	640 (11.5)	630 (10.9)	587 (9.3)
인문계열	398	375	385	358	477
정규직	206 (51.8)	171 (45.6)	175 (45.5)	173 (48.3)	274 (57.4)
비정규직 (풀타임)	66 (16.6)	57 (15.2)	70 (18.2)	50 (14.0)	68 (14.3)

〈표 계속〉

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 실태조사 | 조사 · 통계 브리프

비정규직 (파트타임)	126 (31.7)	147 (39.2)	140 (36.4)	135 (37.7)	135 (28.3)
사회계열	1,000	1,087	1,024	1,064	1,150
정규직	722 (72.2)	779 (71.7)	742 (72.5)	788 (74.1)	887 (77.1)
비정규직 (풀타임)	122 (12.2)	148 (13.6)	118 (11.5)	112 (10.5)	113 (9.8)
비정규직 (파트타임)	156 (15.6)	160 (14.7)	164 (16.0)	164 (15.4)	150 (13.0)
공학계열	1,776	1,936	1,898	1,956	2,222
정규직	1,276 (71.9)	1,400 (72.3)	1,357 (71.5)	1,431 (73.2)	1,561 (70.3)
비정규직 (풀타임)	456 (25.7)	489 (25.3)	494 (26.0)	477 (24.4)	611 (27.5)
비정규직 (파트타임)	44 (2.5)	47 (2.4)	47 (2.5)	48 (2.5)	50 (2.3)
자연계열	838	918	859	872	975
정규직	409 (48.8)	453 (49.4)	395 (46.0)	439 (50.3)	478 (49.0)
비정규직 (풀타임)	380 (45.4)	404 (44.0)	396 (46.1)	391 (44.8)	449 (46.1)
비정규직 (파트타임)	49 (5.9)	61 (6.6)	68 (7.9)	42 (4.8)	48 (4.9)

주: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고용형태는 2016년부터 조사되었음.
 자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 실태조사」.

IV. 요약 및 결론

- 최근 들어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중 직장 병행자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공학계열 및 자연계열에서 2019년에 비해 2020년의 직장 병행자 비율의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남.
- 박사학위 취득 당시 취업, 시간강사 또는 박사후연구원(Postdoc)으로의 진로 확정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 중 인문·사회계열의 학업전념자 비중은 2020년 기준 각각 14.5%, 10.1%로 매우 낮은 편임.
- 박사학위 취득 당시 박사후연구원 확정 및 계획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시간강사 비율은 인문·사회·공학·자연계열 분야에서 2020년 기준 16.0%로, 2012년(38.8%)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함.
- 박사학위 취득 당시 취업자 및 취업예정자의 종사상 지위의 경우 최근 3년간 상용근로자 비중은 약간 증가하였고, 임시근로자의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고급인력의 양적인 증가가 대학의 연구역량 및 국가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육, 산업, 노동시장 측면에서 고급 인적자원의 양성 및 활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고급인력에 대한 국내외 수요가 모두 급증하는 상황에서, 고급인력 양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의 양과 질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참고문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index>(검색일자: 2021. 5. 26.).

한국교육개발원(2019).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 실태조사」.